

Special Theme

01

전통시장의 화재취약요인과 소방안전대책



박 두 석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1. 머리말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붉은 화염이 서민들의 생활터전인 전통시장을 집어삼킬듯 하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의 상인들은 연기로 뒤덮인 점포로 진입하려하고 있고, 검게 그을린 소방관들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곳은 2005년 12월 29일 화재가 발생하여 진화 중이었던 4명의 소방공무원이 다치고, 186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서민들의 생활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간 대구 서문시장 화재현장이다.

서민의 생활터전인 전통시장은 오랜 전통 속에 서민들에게 쇼핑의 편리성을 제공하여 왔으나, 유통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전통시장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으며, 소규모 점포 밀집, 미로형 골목 등 낙후된 공간과 건축물로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안전의식 결여로 화재에 대한 인식 부재와 영세 상인들로서 화재안전에 대한 시설개선 등의 투자가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대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최근 4년 동안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연평균 67건이 발생



하였으며 피해액은 6억 8천만원에 달한다. 이것은 전통시장 건당 평균 피해액이 1천만원으로, 전체 화재 평균 피해액 6백만원과 비교하여 볼 때 1.7배나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겨울철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취약요인을 파악하고 화재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소방안전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최근 4년간 전통시장 화재사고 현황

구분	화재(전체)		화재(시장)		건당 피해액	
	건수	피해액	건수	피해액	전체	시장
2009년	47,318	251,853	64	547	5.3	8.5
2010년	41,863	266,776	62	624	6.4	10.1
2011년	43,875	256,548	68	1,104	5.8	16.2
2012년	43,249	289,526	72	475	6.7	6.6
4년 평균	44,076	266,176	67	688	6.0	10.4

[단위 : 건, 백만원 / 출처 :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감]

2. 전통시장 화재취약성

가. 연소확대 위험상존

전통시장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물 밀집지역이 많으며,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연소확대 방지시설(방화구획) 및 소방시설의 설치가 곤란하여 화재 발생 시 그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된다. 시장 상품은 대부분 가연성 물질이며 연소 시 독성가스가 다량 분출되어 화재진압활동에 장애를 준다. 또한 미로와 같은 통로와 무질서한 상품적치 등으로 피난이 제한적이며,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로 “방화(Arson)”의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있다.

나. 노후화된 전기·가스·소방시설 과다

전통시장은 다수의 영세상인들이 시장 내에서 식생활을 자체 해결하기 위해 전기 및 가스시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화재요인이 상존한다. 특히, 선풍기, 에어컨, 전기장판, 전기·가스난로와 같은 전기제품을 노후된 전기설비에 마구잡이로 증설하여 사용하고 있어 전기 과부하에 따른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다. 소방시설 적용 및 소화활동 곤란

전통시장은 1950~60년대 생성되면서 당시 소방법규를 적용받아 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옥내소화

전 설비가 대부분이며, 일부 전통시장의 경우 리모델링 형태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을 통하여 자연발생적으로 개별 동으로 증축되는 등 소방관련법상 법정 소방·방화시설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협소한 소방도로에 무질서한 노점상과 불법주·정차 차량이 점유하고 있으며, 시장 주위에 전선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어 사다리차 등 특수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화재 진압작전에 어려움을 겪는다.

라. 안전의식 부재

전통시장은 영세한 상인들의 안전의식 미흡으로, 소방도로 확보 등 민·관 소방훈련 종료 후 곧바로 이루어지는 노점상의 불법 소방통로 점유와 위험물질 사용을 단속 하여도 그때뿐이며, 소방안전시설을 갖추고도 일시적인 관리유지로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시장의 영세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비원 인력감축과 노령화는 전통시장의 소방안전관리 운영 및 경비체제의 부실로 이어져 화재발생률은 증가하는 반면, 초기대응체계는 더욱 약화되고 있다.

3. 소방안전대책

전통시장은 영세한 상인들로 구성되어, 시설 현대화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2001년부터 상권회복측면에서 추진 중인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장화재는 대형화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화재안전 측면을 고려한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환경개선사업의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다수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어 의사결정 통일이 어려우므로 화재위험이 큰 노후 시장부터 단계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상인 참여 중심의 자율적인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화재안전교육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징후 감시 단계에서 상인의 자발적 감시 및 신고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화재예방활동 및 초동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 소방대와 연계한 시장 자율 소방대를 운영하고, 명예소방관 위촉 등을 통한 자율책임성 부여방안을 강구하며, 시장 내 소화기·소화전 등을 직접 활용하여 유사시를 대비한 상인 참여형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화재 등 재난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안전점검 강화

전통시장은 화재에 대해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이웃점포로 급격히 연소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책이다. 전통시장 경제여건상 완벽한 전기·가스·소방시설의 투자는 현실상 어려우므로 기존에 설치된 각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합동안전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자치단체 및 전기·가스안전공사·소방관서 등 안전점검기관의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은 하루 빨리 개선 보완하는 것이 전통시장의 화재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다. 소방안전시설 강화 등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제도 보완

현재 소방안전제도는 소방관계법에 따른 획일적인 사양중심의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케이드 설치 등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시장은 정기적인 화재안전점검을 통해 시설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설 현대화 대상 시장은 계획 단계부터 화재하중·피난동선·점포 용도를 고려한 소방시설 설치, 소방대 진입계획 등이 포함된 방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아케이드 설치 시장의 경우는 화재위험도가 높아지므로 아케이드를 활용한 화재감지·배연·조기소화·비상대응전략이 포함된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 자료는 시설 준공 후 화재안전점검에 대한 기준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4. 맺음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통시장은 노후건물 등 화재취약요인 등으로 인해 화재 시 항상 대형화재로 확대된다. 이에 반해 시장상인들은 화재안전보다는 생계에 더욱 치중하게 되어 화재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화재 발생 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된다.

전통시장의 화재는 화재가 났을 경우 통제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무엇보다 예방활동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상인의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전통시장 소방관련법 강화, 정기적인 화재안전점검 실시, 시장현대화 사업 확대 등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겨울철 시장안전관리는 특정인이 아닌 상인들 모두가 자신의 재산손실을 막는다는 굳건한 의지와 노력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 강화를 통하여 상시 자율적인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

[참고문헌]

1. 화재사태를 통하여 고찰한 재래시장 소방안전에 관한 연구 (2006 서울시립대학교, 김홍식)
2. 전통시장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중소기업청, 2011.12)